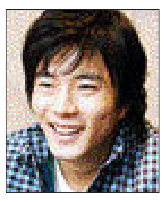
“日 사인회 관련 협박당했다”
권상우, 김태촌 고소



영화배우 권상우씨〈사진〉가 서방파 두목 출신의 김태촌씨에게 협박당했다고 고소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권씨는 “올해 초 지인 A씨와 함께 일본에서 팬 사인회를 추진했으나 이 과정에서 사업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자 A씨의 부탁을 받은 김씨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김씨를 고소했다. 권씨는 이후 3차례 정도 검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권씨의 변호인은 “고소장 제출이 아닌 구두(口頭)로 고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9월 말 피고소인측과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그러나 “권씨를 협박하지 않았으며 원만하게 화해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교도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 수사 중인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이 사건을 내려보내 함께 수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결정문 휴대폰에 뜬다
광주지법, 전국 첫 문자 서비스

‘귀하께서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하신 개인회생사건의 변제 계획안이 2006년 11월10일 인가(불인가)되었습니다.’

법원 결정문도 이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받아볼 수 있다.

광주지법(법원장 김관재)은 9일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하는 판결이 아닌 결정 등의 경우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판부의 결정 직후,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의 결정문 SMS서비스는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이다.

SMS서비스 대상은 ▲심문을 요하는 가처분결정 ▲개인파산 사건의 면책 결정 ▲개인회생사건의 회생계획안 ▲민사사건 변론기일변경 ▲가사항소 결정 등 20여 개다.

월 평균 발송량은 분야별로 적게는 10~20건, 많게는 400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달부터 민사부·형사부·행정부 등 전체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판결 즉시 공개하고 있다.

광주지법 이명철 판사는 “그동안 민원들은 결정문을 우편으로 송달받거나 전화·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겪었지만, SMS 서비스로 이에 따른 불편과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트렌드 Trend
UCC 열풍

꼭짓점 댄스·안아주기 운동·쌩얼 세안법…

인터넷 ‘동영상 文化’ 주도

네티즌 직접 촬영…선정·폭력물 역기능 우려도

광주 경신여고에 다니는 정민지(19)·김유경(19)양은 지난 6월 ‘내가 바로 꼭짓점 댄스 왕’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의 동영상 섹션인 ‘플레이’에 올렸다. 이 동영상을 본 네티즌은 10만292명이나 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네티즌들이 직접 만든 동영상이 인터넷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정양 등의 ‘꼭짓점 댄스’ 동영상, 호주서 시작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안아주세요’(Free hugs) 동영상, 미국 언론의 극찬을 받은 한국의 무명 기타리스트 임정현씨의 연주 등의 공통점은 ‘UCC’(User Created Content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는 점이다. 최근엔 우유·소금물을 이용한 ‘쌩얼(화장하지 않은 얼굴) 세안법’ 등 웰빙과 연관된 동영상이 뜨고 있다.

국내에서는 ‘판도라 TV’(www.pandora.tv) ‘UMC’ 등을 비롯, ‘야후코리아’(kr.yahoo.com)·‘다음’(www.daum.net)·‘프리챌’(www.freechal.com) 등 주요 포털사이트가 앞다퉈 ‘UCC’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마케팅업체 ‘코리안클릭’(www.koreanclick.com)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제공하는 UCC 서비스인 ‘TV 팟’의 지난 8월 이용자는 676만4천28명, ‘네이버’의 ‘플레이’에는 같은 기간 563만8천820명이, ‘프리챌’의 ‘Q’에는 181만38명이 방문했다.

‘클릭’ 한번이면 독특하고 다양한 영상을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체류 시간도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업체 ‘매트릭스’(www.matrixmedia.com)에 따르면 평균 체류 시간은 10여 분이나, ‘판도라 TV’는 39.43분이나 됐다.

‘UCC’ 열풍은 기존 사진과 글로 운영되던 블로그와 미니홈피 등의 영역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 자신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올려 공유하는 등 네티즌들의 의사소통 창구로 자리 잡으며, 새로운 인터넷 문화를 창출해 내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편집·심의를 거치지 않은 ‘UCC’가 일반화되면 성인·폭력물이 판을 치고 있다. 또 타인 동의를 받지 않은 초상권 침해, 공들여 만든 창작물을 베끼는 불법 복제물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저작권 침해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현대원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UCC’가 문화적 운동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한 콘텐츠 질 향상이 필수”라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UCC(User Created Contents)=인터넷 사용자가 직접 생산하는 모든 콘텐츠를 뜻한다. 미국의 동영상 저장 사이트 ‘유투브’(www.youtube.com)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면서 ‘동영상’으로 의미가 축소됐다.

나원참 〈6972〉 김종두

‘성난 농심’ 배추밭 갈아 엎기 작황 호조로 배추 가격이 폭락하자 해남군 마산면 맹진리 농부 이승관(47)씨 부부가 1천여 평의 배추밭을 트랙터로 갈아 엎고 스프링클러를 철거하고 있다. 산지 배춧값은 지난달 1kg(도매가 기준) 209원에서 최근 186원으로 떨어졌다.

/해남=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인화학교 외부이사 선임 권고
광주지법 “내달 초까지 문제해결 성의 보여라”

일부 교직원들의 장애학생 성폭행으로 촉발된 사회복지법인 우석 산하 광주인화학교의 내분사태가 법원의 외부이사 선임 권고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선재성)는 9일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광주 광산구청을 상대로 낸 ‘임원해임명령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첫 심리에서 “학교운영과 이사회를 제대로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이사진 7명 가운데 절반은 외부 기관, 즉 행정청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임원해임 처분 과정의 행정상 오류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인화학교 사태를 바라보는 지역 사회와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법인이 수개월 동안 아무런 사후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법인 측이 문제해결을 위한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법인 측이 소송에서 완전패소할 경우 법인 설립허가 취소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권고는 문서화된 법률적 권고가 아닌 구두이긴 했으나,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권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인 측 변호인은 “법인 측에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임원개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판부 입장을 존중해 적절한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혀 권고안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2차 심리는 다음달 7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
선거법 위반 교사직 상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일 17대 총선 당시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따라 장 위원장은 교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연합뉴스

대낮 아파트서 팔찌 등 절도

지난 8일 낮 1시4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K아파트 김모(여·73)씨의 집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침입해 팔찌·현금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임주형기자 jhlim@

술집서 훔친 수표 주인에 빌려줘

쌍나팔

○…단골 술집에서 수표를 훔친 40대가 실수로 도둑질한 수표를 술집 업주에게 빌려주는 바람에 덜미.

○…9일 광주 동부경찰에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허모(43·광주시 동구)씨는 지난 3일 새벽 1시3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J호프집에서 주인 박모(여·40)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서 현금 30만원과 10만원권 수표 22매 등 250만원을 훔쳤다는 것.

○…허씨는 그러나 지난 8일 평소 친한 박씨가 집으로 찾아와 “100만원만 급히 빌려달라”고 하자 훔친 수표를 건네주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고.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